

2011.10.17 미래정책연구실

□ UN, 양우 식량가격 높은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

1. FAO, FINANCIAL TIMES(2011.10.10) 주요 내용

- 지난 10일 UN의 FAO, IFAD(International Fund of Agricultural Development)와 WFP(World Food Programme)가 공동으로 발표한 "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1" 보고서에 따르면, **곡물 재고량 감소, 바이오에너지 시장과의 연계, 이상기후**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식량가격은 높은 수준과 불안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.
 - 이로 인해 가난한 농민과 소비자,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**식량 불안정**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주장함.
- UN은 식량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**투기자본을 지목**함.
 - 곡물관련 선물거래는 실제 농산물 거래는 2%에 불과하며, 나머지 98%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들이 선물시장에서 곡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임.
 - 그리하여 11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20G 정상회담에서는 곡물투기 규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임.
- UN은 2015년까지 전 세계의 기아인구수를 1990년의 50% 수준으로 줄이는 '새천년개발목표(MDG: Millennium Development Goals)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국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.
 - FAO 관계자는 "식량가격 급등으로 이러한 목표는 도전받고 있다"고 언급하며, 북한을 포함한 34개국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국가로 지목함.
- 식량가격 불안정의 영향은 국가, 인구와 가계에 매우 다르게 영향을 미침.
 - 특히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,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들은 곡물가격이 폭등했던 2007~2008년에 영양결핍 인구가 8% 증가하여 식량원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. 반면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국가의 경우 일정한 수준을

유지함.

- 또한 가격 불안정은 소득에 영향을 미치며, 이는 다시 식품소비 감소로 이어져 어린이들의 경우 주요 영양소 섭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